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 후속조치 착수 ‘하늘길 독점’ 완화 절차 본격화 10개 노선 대체항공사 선정 추진

슬롯·운수권 이전 본격화
독과점 완화로 소비자 이익
2026년 신규 취항 길 열려
에어프레미아·버진 가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따른 구조적 시정조치 이행 절차가 본격화됐다.

결합 이후 독과점이 우려되는 10개 국내·외 노선에 대해 다른 항공사에 공항 슬롯 및 운수권을 이전하는 절차가 시작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일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이행감독위원회(이감위)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인천-시애틀·광·호놀룰루·런던, 김포-제주 등 총 10개 노선의 대체항공사 이전 절차 개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이전 절차는 공정위가 2024년 12월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부과한 구조적 조치의 후속 단계다.

공정위는 당시 독과점이 우려되는 34개 노선에서 대한항공이 보유한 슬롯(항공당국이 항공사에 배정한 항공기 출발, 도착시간)과 운수권(항공사의 특정국 취항 권리)을 경쟁 항공사에 이전하도록 명령했다.

이전 절차가 개시된 10개 노선은 미국 4개(인천-시애틀, 인천-호놀룰루, 인천-광, 부산-광), 영국 1개(인천-런



인천국제공항 전망대에서 바라본 공항 계류장 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모습. /뉴시스

던, 인도네시아 1개(인천-자카르타), 국내선 4개(김포-제주, 광주-제주, 제주-김포, 제주-광주)다.

이 중 인천-호놀룰루 노선은 미국 경쟁당국이 에어프레미아를 대체항공사로 지정했으며, 인천-런던 노선은 영국 경쟁당국이 버진아틀란틱을 대체항공사로 결정한 상태다.

이감위는 앞으로 ▲대체항공사공고·접수 ▲적격성 검토 ▲국토교통부 항공교통심의위원회의 평가·선정 ▲결과 통보 등의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최종 선정된 항공사는 이르면 2026년 상반기부터 해당 노선에 신규 취항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앞서 인천-LA, 인천-파리 등 6개 노선에서는 이미 슬롯·운수권 이전이 완

료됐다. 해당 노선들은 해외 경쟁당국의 승인 절차까지 마쳐 우선 이전된 바 있다.

이감위는 이번 10개 노선을 시작으로 2026년 상반기부터 나머지 18개 노선에 대한 이전 절차도 순차 진행할 예정이다.

이행이 완료되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결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독과점 구간의 경쟁이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이번 이전 절차 개시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간 기업결합으로 인해 경쟁 제한 우려가 있던 독과점 노선들에 대체 항공사가 진입됨으로써 항공시장에서의 경쟁이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정신질환 산재’ 10년 새 10배 급증

김위상 “예방 중심 마음건강 정책 시급”

정신질환으로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노동자가 10년 만에 10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적응장애’ 산재가 폭발적으로 늘며 전체 정신질환 산재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2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신질환 산재 승인 건수는 2015년 46건에서 지난해 471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도 7월까지 240건이 승인돼 현 추세라면 연말에는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높다.

정신질환 산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질환은 ‘적응장애’였다. 2015년 10건에 불과하던 적응장애 산재는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급증세로 돌아서며 2020년 161건, 2021년 245건, 지난해 229건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7월까지 140건이 승인돼 전체 정신질환 산재의 58.3%를 차지했다. 지난해(53.0%)보다 비중이 높아졌다.

정신질환 산재로 인한 자살(유족급여 승인) 사례도 2015년 7건에서 2021년 77건으로 급증했다가, 최근 3년간은 매년 30여 건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올해는 7월까지 14건이 승인됐다.

요양기간도 급격히 늘었다. 정신질환 산재자의 평균 요양기간은 2016년 533.3일에서 지난해 731.3일로 늘며 처음으로 만 2년을 넘어섰다. 올해도 724.0일로, 산재 승인 노동자들이 평균 약 2년간 근무를 중단하고 요양하는 셈이다.

김위상 의원은 “최근 10년간 정신질환 산재가 10배 넘게 늘었는데도 제도는 여전히 사후 대응 방식에 머물러 있다”며 “정부는 원인별 현황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노동자 마음건강을 보호할 예방 중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전기안전공사, 삼성SDI와 ESS 안전관리 협약

기술교류·인력양성 추진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지난 20일 삼성SDI와 ‘전기저장장치와 무정전전원장치 등 배터리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국정과제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발맞춰, 가파르게 성장하는 ESS 시장의 안전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업무협약서에는 ▲ESS 등 설비의 안전관리 정책 발굴과 안전성 강화를 위한 개선안 마련 ▲사고 예방을 위한 매뉴얼 공동개발·기관간 대응 체계 구축 ▲제조사 원격 모니터링 장치, 소화시스템 설치 등을 위한 관계자의 자율적 참여 유도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교류 등이 포함됐다.

전기안전공사는 삼성SDI가 최근 국내 최초로 열린 장주기 ESS 중앙계약시

장 입찰에서 전체 발주물량의 약 80%를 수주할 만큼 시장을 선도하는 업체인 만큼,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효과적인 ESS 사고 예방 체계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날 업무협약 이후 양사는 실무협의체를 꾸려 세부 이행과제를 구체화하는 등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남화영 전기안전공사 사장은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ESS의 안전성 확보는 국민 안전과 국가 에너지 안보를 위한 최우선 과제”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ESS 전주기에 걸친 안전망을 구축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주선 삼성SDI 대표는 “이번 협약은 삼성SDI의 기술 리더십을 사회적 책무로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며 “전기안전공사와의 협력으로 제품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APEC 특수 노린 역대급 수출 ‘세일즈전’

산업부, ‘봄업코리아 Week’
전국 주요 28개 전시회 연계 개최
70개국서 1700명 바이어 방문

정부가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역대 최대 규모의 글로벌 수출 세일즈전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21일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2025 수출 봄업코리아 Week’ 개막식을 열고, 내달 7일까지 약 3주간 전국 주요 전시장에서 수출상담회와 산업 전시회를 연계한 대규모 수출행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봄업코리아’ 수출상담회는 2015년부터 이어져온 국내 최대 수출상담 행사로, 지난해부터는 지역 산업전시회·문화·관광을 결합해 ‘수출 봄업코리아 Week’로 확대 운영되고 있다. 올해는 APEC 정상회의라는 국제 행사를 맞아 행사 규모를 대폭 키웠다.

올해 행사에는 70개국 1700여개 글로벌 바이어가 방한한다. 지난해보다 70% 늘어난 수치다. 국내 참가기업도 4000여개사로 30% 증가했다. 산업부는 전국적으로 1만 건 이상의 수출상담이 이뤄지고, 3억 5000만 달러 규모의 계약 및 MOU 체결을 기대하고 있다.



수출봄업코리아 수출상담회 행사장 조감도. /산업부

전국 전시회 연계도 강화됐다. 지난해 20개에서 올해는 28개로 확대돼 ▲수도권(한국전자전·반도체대전) ▲충청(오송화장품뷰티엑스포) ▲영남(대구F IX·부산 국제조선해양산업전) ▲호남(광주 빅스포·목포 남도국제미식박람회) 등 권역별 대표 산업전시가 함께 열린다.

또 산업전시회와 함께 지역 문화·관광 프로그램도 확대됐다. 수도권 한강 크루즈·한복체험, 영남 경주문화투어·치맥페스티벌, 충청 전통주문화재 체험, 호남 해상케이블카·남도미식 투어 등 지역별 ‘블레저(Business+Leisur

e)’ 프로그램을 통해 바이어 체류기간을 늘리고, 내수 활성화도 동시에 꾀한다.

킨텍스 주 전시관에는 ▲AI·혁신기술관 ▲지역상생관 ▲건설팅관 ▲한류체험관 등이 마련됐다. CES 혁신상을 수상한 ‘시에라베이스’(지능형 로봇 안전진단), ‘심지’(VR 중장비 시뮬레이터), ‘디지털센트’(AI 맞춤형 향수) 등 국내 혁신기업들이 제품을 선보인다. 또 영국 방산기업 BAE 시스템즈, 미국 GM, 아프리카 최대 전자기업 엘라베, 튀르키예 RMK 마린 등 해외 대형 바이어들도 대거 참석한다.

현장에는 ‘원스톱 수출애로 컨설팅관’이 운영돼 관세, 인증, 물류,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수출기업 애로해소에도 나선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개막식에서 “수출 봄업코리아 Week’가 우리 기업의 혁신 역량이 세계로 뻗어 나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기업의 열정과 정부의 지원이 결합해 K-기업의 브랜드 파워를 세계에 알리고, APEC을 넘어 글로벌 도약의 발판이 되도록 정부도 끝까지 함께 뛰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